제주교육대학교 논문집 (2006)
제35집 pp. 1~21

불교와 기독교의 실천론

고 대 만*

〈목 차〉

Ⅰ. 비교로서의 대화 : 평화를 위한 공존의 모색
Ⅱ. 종교성(종교적 실천) : 일상 속의 일상성의 초월
Ⅲ. 실천을 통해 도달할 이상세계
: '현실 속의 열반'과 '천국 속의 영원한 생명'
Ⅳ. 실천을 위한 궁극적 의지처 : 다르마와 하느님
Ⅴ. 실천을 위한 최고덕목 : 자비와 사랑
Ⅵ. 불교 및 기독교 실천론의 특색
Ⅶ. 결 론

Ⅰ. 비교로서의 대화 : 평화를 위한 공존의 모색

다양한 이념과 종교들이 각기 궁극적 진리와 진정한 행복으로 이르는 열쇠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합적 이념·종교의 시대다. 진리의 배타적 독점을 주장하는 한편으로, 또한 그 진리를 신봉하는 공동체의 조직적 안정과 확대를 꾀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온 세계를 자기의 이념과 종교로 채색하려는 계획과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가 하면, 진리의 확신 속에 은근히 움직이기도 하고, 사필귀정이라고 아예 백안시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한편 이와는 달리 이념적, 종교적 분쟁의 참혹한 귀결을 우려하는 종교지도자도 소수 있는 듯하며, 모든 종교들은 궁극적인 하나의 진리를 자기 식으로 표현, 해석하는 것이라는 종교적 다원주의의 우산 속에 포함되는 일군의 학자들도 있는 것 같다. 다시

* 제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말하면 자기 종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해탈, 구원이 가능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자기의 종교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타종교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 일은 역시 선각적 소수의 대화적 노력을 통한 비교적 안목의 성취를 토대로 그 안목을 다수에게로 확산시킴으로써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신세계에 있어서나 가치세계에 있어서 획일성을 성취하려는 시도가 사회의 전체주의화를 낳을 수 있음을 예견한다면, 정신세계 내지 가치세계의 문제는 각자의 선택의 문제로 남겨두되, 타인의 정신세계 내지 가치세계에 폭력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관용의 정신 하에, 상호공존하는 법을 학습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개인이 만족과 안락과 평화를 얻고, 공동체가 안정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목표인 한, 각 종교 간 대화를 통한 이해와 협력으로써 사회의 문제, 인류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각 종교의 실천들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대화를 통한 이해와 공존, 협력의 모색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 글에서는 불교와 기독교의 실천의 문제, 즉 윤리의 문제들을 다루어 보려는 것이다. 논의의 과정에 공통점과 아울러 차이점들도 부각하면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좋은 시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Ⅱ. 종교성(종교적 실천) : 일상 속의 일상성의 초월

1. 기독교적 윤리 : 상식성에서 종교성에로의 인식-실천의 전환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달리함으로써 일상의 삶 속에서 세속성 혹은 일상성 혹은 통념성을 초극할 수 있다는 입장을 기독교는 견지하는 듯하다. 사물 현상을 깊이 통찰하여 상식을 뛰어넘은 안목을 가질 수 있다면, 일상의 삶과 일상성을 뛰어넘는 삶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요청되는 것은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존재구조를 이해하는 것, 다시 말하면 신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깊이 통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통찰 속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신에 대한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자세이다. 계명은 오로지 하느님에게로 향하는

순수한 마음을 요구한다. 근원적 순수성, 완전성을 요구한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재판받을 것이다"는 살인에 대한 전통적 상식을 뛰어넘어 인간 자체의 존엄성에 대한 심오한 인식에 이른다. 살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동기가 되는 근원적인 원한마저 뿌리째 뽑을 것을 강조한다. 마음에 일말의 적의가 남아 있어도 안 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법정에 넘겨질 것이다. 또 자기형제더러 미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에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를 찾아 가 화해하고 나서 돌아 와 예물을 드려라"(마태복음 5: 21-24)

또 예수는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에 있어서 정신적 순결성을 강조한다. 비록 외면적 행위가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의 깊은 속이 순결치 못하다면 순결하지 못한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에서 간음하였느니라"(마태복음 5: 27-28)

"거짓맹세를 하지 말라"는 전통적 도덕률에 대해서도 거짓맹세뿐만이 아니라 아예 모든 맹세를 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것을 맹세치 말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느님의 보좌인 까닭이다.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느님의 발판인 까닭이다.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도성인 까닭이다.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마태복음 5 : 33-36)

또한 예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상식적 차원의 것이라 한다. 선한 행위에 좋은 보상이 주어지고,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악한 것으로 보상하는 것이 상식적 차원에서는 정의롭다. 그러나 종교적 가르침에 따른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응보적 정의는 온당치 못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로섬 게임을 뛰어넘는 포용성을 제시한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앙갚음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갖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5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10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마태복음 5 : 38-42)

이와 같이 '왼뺨마저 내주기'는 상식적 논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삶에서는 도저히 실천하기 힘들다. 더 나아가 원수를 미워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마태복음 5 : 43-48)

2. 불교적 윤리 : 세간성에서 출세간성에로의 인식-실천의 전환

불교에서의 出世間은 세간 속에서의 출세간이다. 세간 이외에 다른 시간과 공간을 갖는 출세간의 삶이 따로 있지 않다. 세간을 떠난다는 출세간은 시공간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치론적 개념이다. 전통적 가치, 세속적 가치, 상식적 가치, 통념적 가치체계 속에서 선은 추구하고 악은 회피하는 삶(즉 세간적 삶)에서 벗어나, 붓다의 가르침에 따른 不二的 , 不異的, 同體的 삶(즉 출세간적 삶)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상적 삶 속에서 구현할 것을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현실의 삶 속에서 나와 너의 대립, 나와 그것의 대립이 아니라 나와 너의 통일, 나와 그것의 통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통일적 삶은 인간의 존재구조--무아, 연기, 空의 구조--가 요청하는 존재방식일 뿐이다. 그러나 일상의 현실적 삶 속에서 무아적 실천을 행하기란 쉽지 않다.

七佛通誡라는 偈가 널리 알려져 있다. 여섯 번째의 가섭불의 偈인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고, 스스로 그 뜻을 맑히는 것, 바로 이것이 붓다의 가르침이다'(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 『大正新脩大藏經』(이하 大正이라함) 2 증일아함경 44 십불선품, 2, pp.787)는 부분은 불교의 본질 내지는 실천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된다. 악은 짓지 말고, 선은 행하여야 한다는 점은 세속적 도덕에서나 종교적 실천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세속적 도덕과 종교적 실천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스스로 뜻을 맑힌다'는 것이다. 궁극적인 기준은 明鏡과 止水와 같은 마음이다.

有所得의 善 즉 有漏의 善과 무소득의 선 즉 무루의 선을 구분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무소득의 선, 무루의 선을 요구한다. 유소득의 선, 유루의 선은 번뇌가 아직 단절되지 않은 상태의 선, 스스로 그 뜻이 정화되지 않은 상태의 선, 불순한 동기에 기반한 것으로 복덕을 받고자 하는 선이다. 無所得의 善, 無漏의 善인데, 세간적 선이 인간번뇌의 긍정에 있음에 대하여 무소득의 선은 번뇌를 단호히 거부하고 번뇌와의 타협을 배척하고 스스로 그 뜻을 깨끗하게 할 것을 요구하며, 그 청정심을 기반으로 하는 선을 요구한다. 일체의 무명과 타협을 물리치고 우주의 질서, 즉 법과 직접 대면했을 때 이룩되는 선이다. 아견, 아집이 털끝만이라도 개재한다면 따름(順)은 즉시 바뀌어 어김이 되고 逆이 된다.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법에 따를 수가 없다(마스다니 후미호 著, 이종택 譯, 불교와 기독교의 비교연구, 고려원, 1991, p.224).

Ⅲ. 실천을 통해 도달할 이상세계
: '현실 속의 열반'과 '천국 속의 영원한 생명'

1. 기독교에서의 '넓은 문'과 '좁은 문'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야말로 하느님을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목표이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은 고난의 역정이다. 그러나 이 현실세계의 사람들은 멸망의 언덕으로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개탄한다.

예수는 두 개의 대립되는 세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 하나의 세계는 악으로써 지배되고 있는 지상의 현실세계였다. 이 지상의 현실세계에서 사제와 학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위선을 일삼고 말만을 앞세워 옳은 일을 행하지 않는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도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의로운 사람과 선한 사람은 오히려 끊임없는 핍박을 받았다. 이 현실세계는 악의 세계이다.

예수에 의하면, 이와 같은 세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사람들의 불신과 그 극에 달한 신성모독 때문에, 신은 드디어 눈을 떠 세계에 종말이 오게 할 것이다. 그 날은 가까워졌다. 그러므로 임박한 새로운 세상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만이 그 세

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즉 "하늘나라는 가까워졌다. 너희들은 속히 회개하여 새로운 세상을 맞을 준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반가운 도래에 대하여 '듣는 귀'를 갖고 있는 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 나라의 백성은 마음은 둔하고, 귀는 있으되 듣는 일에 게으로고, 눈은 감겨져 있구나"

이와 같이 예수의 마음 속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었다. 그 하나의 세계의 사람들은 머지않아 지옥의 불길 속에 던져질 운명을 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도히 흐르는 물결처럼 지옥으로 향하여 행진한다. 그 모양은 마치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여 밑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음과 같다.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머지않아 다가올 세상의 종말에는 하느님의 나라에 초대되어 찬란한 햇빛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찾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 그것은 지금 잠시 동안은 이 길을 가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은 가늘어 이를 찾아내는 자는 적다."

2. 불교에서의 '불타는 세계'와 '불길이 꺼진 세계' : 세간/출세간, 차안/피안

불교에서는 이 현실세계는 '불타는 집'(火宅)으로 비유한다. 물론 여기서 불은 번뇌를 가리킨다. 즉 번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세계가 이 현실세계이다. 이 세상 모두가 불타고 있다는 것이다. 『法華經』의 「비유품」 '三界火宅'의 비유는 유명하다. 그 비유품의 운문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세상의 즐거움에 집착하여 慧心없구나. 삼계는 편안함이 없고 마치 불타는 집과 같구나. 많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심히 두렵고 무섭구나. 언제나 생과 사, 병에 대한 걱정뿐. 이와 같은 불길은 더욱 성하게 타올라 꺼지지 않는구나."(대정 9 법화경 권2, p.14)

붓다에 의하면,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이 이 세계를 불타게 한다. "비구들이여, 일체가 불타고 있다. 크게 불타오르고 있다. 너희들은 이를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일체가 불타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비구들이여, 눈이 불타고 눈으로 보는 대상도 불타고 있다.(중략) … 그것들은 무엇에 의하여 불타는 것일까. 그것은 탐욕 때문에 불타고, 분노 때문에 불타고, 어리석음 때문에 불타고 있다. 생로병사의 불길로 해서 타고, 걱정과 고민의 불길로 해서 탄다." 그리하여 붓다는 일체의 것에 대해 집

착하지 않는 마음을 강조한다. "일체를 멀리하는 마음이 생기면 집착하는 마음은 멀어져서 해탈할 수가 있다." 붓다가 이렇게 설법하자 그 많은 비구들의 마음은 그 자리에서 당장 집착을 떠나 번뇌로부터 해탈할 수가 있었다고 되어 있다.(율장대품 21, 1-4(남전대장경 제3권, pp.61-63)

번뇌의 불길이 꺼진 상태가 해탈이요 열반이다. 법구경에 보면 열반은 최상의 것이라고 설하고 있다. "모든 부처님들은 열반을 모든 것들 중에서 최고라고 단언하신다" (대정 4 법구경 567a25: 佛說泥洹最) 또 열반이 궁극목표임을 비교를 통해서 언급한 부분도 있다. "병이 없는 건강함이 최고로 이로운 것이요, 만족을 아는 것이 최대의 부자이며, 너그러움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최대의 덕이듯이, 열반은 최고로 유쾌한 것이다. 배고픔이 가장 큰 아픔이며, 行이 최대의 고통이며, 진리에 따라 이것을 알면, 열반은 최고로 즐거운 것이다."(『대정』 4 법구경 573a27-29: 無病最利 知足最富 厚爲最友 泥洹最快 飢爲大病 行爲最苦 已諦知此 泥洹最樂)

붓다 자신의 가르침은 세상의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쾌락이나 명예나 축재 같은 인간적 욕망을 약속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오히려 그런 욕망에서의 격정을 완전히 없앰으로써 이 마음을 구속하고, 이성을 방해하는 것이 없는, 완전히 자유롭고 광활한 심경을 궁극의 이상으로 삼아, '너희들도 오라' 고 손짓하여 부른 것이었다. 그 경지를 '열반' 이라는 말로 나타냈다는 것은, 거기서는 탐욕도 노여움도 어리석음도 완전히 사라져서, 이제는 그를 태울 어떤 불꽃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라 이해된다.(『대정』 2 잡아함경 18, 126b03-04: 舍利弗言 涅槃者 貪欲永盡 瞋恚永盡 愚癡永盡 一切諸煩惱永盡 是名涅槃)

Ⅳ. 실천을 위한 궁극적 의지처 : 다르마와 하느님

1. 기독교적 삶을 위한 궁극적 의지처 : 하느님

반석 위에 기초를 단단히 세운 집은 요동이 없음과 같이, 불안이 없는 삶을 영위하고 싶은 것은 모든 생명 있는 존재의 염원일 것이다. 인간은 어디에서 그와 같은 불안이 없는 생활의 기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물질과 재화에 의지할 수 없고, 명예에 의지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는 부와 명예 같은 현실세계에서의 가치를 통해서는

마음의 궁극적 안온을 성취할 수 없고, 오직 자기에 귀의하는 자만이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사람은 집을 지을 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으니 홍수가 나서 물이 그 집에 이르러도 잘 지은 연고로 조금도 흔들리지 않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들이치면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될 것이니라."(누가복음 6 : 46-49)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 : 28)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에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은 적이 있다. 이 물음에 대하여 예수는 온화한 눈길을 그들에게 보내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마태복음 19 : 25-26)고 대답하였다. 여기에 예수가 의지하여 꿋꿋하게 버티고 섰던 반석이 있었다. 인간은 무력할지 모른다. 그러나 신은 전지전능하다. 숨어 계시면서 일체를 아신다.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를 우리들이 알지 못해도 하느님은 잘 알고 계신다. 그렇다면 인간은 자신의 고뇌와 판단 및 계책을 버리고 다만 신의 뜻에 따라 맡길 수밖에 없지 아니한가. 어리석은 우리들 인간의 뜻으로 행하는 것을 그만두고 '다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예수의 길이었다. 일체를 내던지고 하늘의 아버지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진면목이라 할 것이며 또 그렇게 해야만 인간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2. 불교적 삶을 위한 궁극적 의지처 : 다르마

불교의 일차적 관심은 인간 존재형식을 극복한, 안온한 삶의 성취이다. 허공 속에 있거나 바다 가운데 있거나 산골 깊숙한 동굴 속에 숨어 있어도 그 곳에 머물러 죽음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 세상의 삶은 참으로 아침이슬의 존재 같지만, 또한 인간이 갖는 것, 인간이 만든 것, 인간이 사랑하는 것, 이 모두 변함이 빠르기만 하다. 따라서 인간이 의지하고자 하는 것도 결국 덧없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소유에 의지하는 자는 소유에 의해 배반당하고 인간에 의지하는 자는 인간에게 배

반당한다.

"공포에 쫓겨 사람들은 산과 숲 속으로 들어가 동산과 나무와 사당에 제사하며 의지할 곳을 찾는다. 그러나 그것은 안전하게 의지할 곳도 가장 좋은 곳도 아니다. 그런 곳을 찾은 후에도 온갖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법정 역, 법구경 188-189, p.112)

붓다는 사성제, 8정도를 최상의 의지처로 제시한다. "부처님과 교법과 승단에 의지할 곳을 찾은 사람은 바른 지혜를 가지고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본다. 괴로움과 괴로움이 일어난 원인과 괴로움을 없애는 것과 괴로움을 없애기에 이르는 여덟 가지 바른 길이 있다. 이것만이 안전하고 뛰어나 의지할 곳, 이런 의지할 곳을 얻은 후에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법정 역, 법구경 190-192, pp.112-4)

원시경전인 아함부의 도처에는 붓다 자신이 기회 있을 때마다 "너 자신에게 의지하고 진리에 의지하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고 누누이 강조한다. 이러한 예증을 몇 가지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마땅히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을 것이며 다른 것을 등불로 삼지 말라. 마땅히 자신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할 것이며 다른 것에 귀의하지 말라"(대정장 1, 장아함경 권2, p.15). "자기를 피난처의 섬으로 삼아 머무르고 자신에게 의지하여 머무를 것이며, 법을 피난처의 섬으로 삼아 머무르고 법에 의지해 머모를 것이니라. 다른 것을 피난처의 섬을 삼지 말 것이며, 또한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지니라."(대정장 2, 잡아함경 권2, p.8).

이와 같은 '自歸依 法歸依' 사상은 다음의 붓다의 가르침에서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밝혀져 있다. "난타여, 너는 나를 믿지 말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 나의 말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형상을 보지 말라. 사문이 소유한 견해를 따르지도 말며 사문에게 공경심을 내지도 말라. '사문 고타마가 나의 위대한 스승이다' 라고 말하지도 말라. 그러나 다만 내가 스스로 증득한 법에 대하여 홀로 조용한 곳에서 사량·관조·성찰하고, 항상 많이 수습하여 用心의 관찰한 바 법을 따라 바로 법의 관상에서 정념을 성취해 머물러 있음이 옳은 일이다. 자신을 피난처의 섬이나 물가로 삼고 자신의 귀의처로 삼을 것이며, 법을 피난처의 섬이나 물가로 삼고 법을 귀의처로 삼을 것이니라, 별도의 피난처로서의 섬이나 물가가 없으며 별도의 귀의처가 없느니라."(대정장 24,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 권12, p.259).

다시 말해서, 붓다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스승인 붓다 자기 자신에게도 맹신하거나 맹종해서는 안 되며 각자 독자적으로 진리를 관찰하고 수행해 가도록 강조했던 것이다.

V. 실천을 위한 최고덕목 : 자비와 사랑

1. 기독교의 최고덕목 : 사랑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은 너무나 유명하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아무리 훌륭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마음의 바탕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무의미하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온갖 신비를 환히 꿰뚫어 보고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사 내 재산을 다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또 내가 남을 위하여 불 속에 뛰어든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친절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사랑은 가실 줄을 모릅니다. 말씀을 받아 전하는 특권도 사라지고,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능력도 끊어지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불완전하고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도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불완전한 것은 사라집니다. … 그러므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고린도전서 13 : 1-13)

기독교도들은 이 구절을 그대로 암송함으로써 자신의 힘으로 삼아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자기의 실천을 지탱해 주는 유일한 지주로 삼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선의 총괄이 있고 모든 의로운 실천이 용솟음치는 샘이 있어, 그들은 사랑을 짊어지는 것 말고는 다른 의무를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다시 〈로마서〉에서 바울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라.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는 사랑이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 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로마서 13 : 8-10)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종교적 실천의 총괄이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 외에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사랑의 의무 외에는 다른 어떤 의무도 지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바울은 자주 강조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예수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간 다음의 일이었다. 예수의 멋진 토론을 듣고 있던 한 율법학자가 예수 앞에 나가 물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나이까." 예수가 대답하기를,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主 곧 우리 하느님은 유일한 主이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 이외에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마가복음 12 : 28-31; 마태복음 22 : 34-41)

누구에게나 똑같이 내려주는 완전한 신의 사랑을 본받아 심지어 원수마저도 사랑할 것을 역설하는 것이 예수 가르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마태복음 5 : 43-48)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의 교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고린도전서 11 : 1)라고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 본받음이야말로 기독교적 실천의 원리임을 천명한 것이다. 바울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본받는 일이다. 하늘의 아버지를 본받는 것은 아버지 주의 완전함처럼 나 또한 완전하고자 하는 그 자체인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착오 많은 인간의 이해타산으로서도 계산되는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은 일체를 내던지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예수를 본받아 행할 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방은 곧바로 실천이 되어 행위로서 실천되어야만 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모방으로서의 기독교적 사랑도 항상 그 행동 속에 구현되어야만 한다. 이웃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사랑을 행하는 것이 하느님을 본받는 일이며, 신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분명하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마태복음 25 : 40) "똑똑히 들어라. 여기 있는 형제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해주지 않는 것이다."(마태복음 25 : 45)

2. 불교의 최고덕목 : 자비

붓다가 기원정사에서 상가라라고 하는 한 바라문의 방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 바라문은 붓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출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한 사람의 안온을 구하고 자기 혼자의 해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혼자만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혼자만을 위한 행복의 길은 많은 사람을 위한 행복의 길에 뒤지는 것이 아닙니까"(증지부경전 3, 60(남전대장경 제17권, p.270) 이 질문에 대해 붓다는 그렇지 않음을 다음과 같이 설법하였다. "나는 번뇌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가하여 그 길을 발견하였고, 그 길에 의하여 해결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사람들에게 설법하여 가로되 여기에 길이 있으니 너희들 또한 이 길에 들어와 해결에 이르는 것이 옳다고 가르친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찾아와 갖고 있던 고뇌의 해결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한 사람만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증지부경전 3, 60; 남전대장경 제17권, pp.270~271)

내 안에 있는 빛에 의해 숭고한 인격을 확립하고 이 세상 속에 있는 살아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그들의 고통을 제거해 주고자 한다. 이것이 자비이다. 삶을 누리는 자 위에 "행복 있으라, 안락 있으라, 평화 있으라"라고 바라는 것이 실천이라고 붓다는 가르치고 있다.

>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안한 경지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 유능하고 정직하고 말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체 하지 말아야 한다.
>
>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잡일을 줄이고 생활도 간소하게 하며,
>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

다른 식자들로부터 비난을 살 만한 비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태평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겁에 떨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큰 것이건 중간치건, 짧고 가는 것이건, 또는 조잡하고 거대한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또는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거나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경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곯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아끼듯이, 모든 살아 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를 행하라. 위 아래로, 또는 옆으로 장애와 원한과 적의가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는 한,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지라 부른다.

온갖 삿된 소견에 팔리지 말고, 계행을 지키고 지견을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탐착을 버린 사람은 결코 다시는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소부경전 경집 1, 8 慈經; 법정 역, 숫타니파타, 샘터, 1991, pp. 50-52)

이 자비에 대하여 〈대지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慈는 중생을 愛念하여 항상 안온하고 즐거운 일로 饒益하게 함을 말하는 것이며, 悲는 중생을 愍念하여 五道 가운데에서 가가가지 육체적 괴로움과 정신적 괴로움을 받는 것을 말한다."(대정장 25, 대지도론 권20, p.208; 慈名愛念衆生 常求安穩樂事以饒益之 悲名愍念衆生 受五道中種種身苦心苦)

"大慈는 모든 중생에게 즐거움을 줌이며, 大悲는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 줌이다. 대자는 중생에게 희락의 인연을 줌이며, 대비는 중생에게 離苦의 인연을 줌이다. … 대자라는 것은 중생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얻게 하도록 생각하고 또한 즐거운 일을 주는 것이며, 대비는 중생의 괴로움을 연민하고 또한 능히 그 괴로움을 해탈케 하는

것이다."(대정장 25, 대지도론 권27, p.256; 大慈與一切衆生樂 大悲拔一切衆生苦 大慈以喜樂因緣與衆生 大悲以離苦因緣與衆生… 大慈者念令衆生得樂亦與樂事 大悲憐愍衆生苦亦能令解脫苦)

대승불교에서 자비의 정신은 보살의 6바라밀 속의 보시바라밀을 통해 구현된다. 보시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의 토대 위에 또는 그것과 동시에 완성된다. 머무름이 없는, 즉 집착이 없는 반야지혜가 중요하다. 반야지혜는 모든 바라밀의 근본토대여야 한다.

六波羅蜜에 있어서의 般若波羅蜜은 보시에서 선정에 이르는 다섯 波羅蜜의 주도자이며, 그들의 성립기반이 된다. 다섯 바라밀은 모두가 반야공관의 입장에서 행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마치 대지에 씨앗을 뿌리면 인연화합하여 생장이 있게 되는데, 이 때 땅을 의지하지 않고는 생장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다섯 바라밀은 般若波羅蜜 속에 머물러 증장함을 얻는다."

布施波羅蜜은 무엇을 베푸는 일이지만, 이에는 財施, 法施, 無畏施의 셋이 있다. 財施는 남에게 물질을 베푸는 것, 法施는 남에게 교법을 설하는 것, 無畏施는 남을 갖가지의 공포에서 구하는 것이다(瑜伽師地論 卷第七十八, 攝決擇分中菩薩地之七, 大正30 · 731 · b; 施三種者 一者法施 二者財施 三者無畏施) 이것들은 어느 것이나 이타의 행이지만, 동시에 또한 자리의 행이기도 하다. 즉 남에게 베푸는 것은 또한 자신의 덕을 쌓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함의 교설에서도 보시는 커다란 공덕이 있는 종교적 행위로 설해지고 있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의 보시는 공덕을 바라고 남에게 시여하는 것이 아니다. 金剛經에 "보살은 마땅히 법에 住함이 없이 보시할지니, 소위 색 · 소리 · 냄새 · 맛 · 촉감 · 법에 住함이 없이 베풀어 주어야 한다."고 설해져 있다. 베풀어 주어도 준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살의 보시에는 "세 가지가 청정하나니, 주는 자와 받는 자와 주는 물건의 셋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교양교재편찬위원회 편, 불교학개론, 동국대학교출판부, pp.113-4.)

대승계율의 총결집은 삼취정계로 나타난다. 섭율의계, 섭선법계, 요익유정계 중 요익유정계가 자비의 실천과 관련된다. 饒益有情戒는 사람들을 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인데, 이를 十一相으로 분류하여 극히 구체적으로 설하고 있다. 제1상은 무릇 18개 항으로 된 이타행으로서, 거기에는 타인의 사업에 대하여 조력하며 조언하는 일, 병자와 불구자에 대하여서는 구제의 손을 뻗칠 것, 여행자에 대하여서는 교통상의 곤란을 제거해 주는 일, 타인의 재산을 보호, 선업에의 조력, 인간관계의 화합, 사람들을 정신적 혼미에서 떠나게 해주는 일 등을 들고 있다. 제2상은 악행, 惡行, 불신앙의

사람들을 이끄는 일, 제3상은 은혜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知恩報恩하는 일, 제4상은 맹수, 독사, 도깨비, 五賊, 水火 등의 재해와 공포로부터 구하는 일(無畏施), 제5상은 친족의 죽음이나 재산의 상실 등 남다른 憂惱를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그 우뇌로부터 떠나게 해 주는 일, 제6상은 의식, 생활의 용구, 휴게소 등 생활에 곤궁해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것들을 주어서 곤궁으로부터 구하는 일(財施), 제7상은 바른 도리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 통어하고, 생활의 資具를 주어서 敎授敎誡하는 일, 제8상은 세간의 사무, 언설, 호소, 담화, 방문, 식사 등의 경우 위함이 되지 않는 것, 뜻에 반하는 것 등을 아니하는 것, 제9상은 信, 戒, 聞, 捨, 慧의 공덕이 빼어난 사람들을 찬양하고 환희케 하는 일, 제10상은 과실, 위범의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친애의 마음을 가지고 가책하며 치벌하며 驅擯(구빈)하며 교계하는 것, 제11상으로는 신통력으로 악행, 無信, 범계, 小聞, 慳悋, 惡慧의 사람들을 바르게 이끄는 것이다.(교양교재편찬위원회 편, 불교학개론, 동국대학교출판부, p.89)

이와 같이 饒益有情戒는 사람들을 위하는 일에는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행한다는 취지의 것이다. 그것은 사회생활의 실제에 입각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윤리의 실천이 수반되는 터이며 매우 구체적이다. 이른바 생활곤궁자에 대한 재시, 재해의 공포로부터 구하는 무외시 등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사회적 봉사의 면도 있으며, 인간의 정신적 지도의 면도 있으며, 일상업무에 대한 조언지도의 면도 있으며, 범죄자에 대한 갱생지도의 면도 있으며, 師·부모에 대한 知恩·報恩의 면도 있는 등 무릇 사람들이 사회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장면에서 윤리의 본연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Ⅵ. 불교 및 기독교 실천론의 특색

1. "나를 따르라" "오너라, 비구여"

예수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를 따르라'고 했다. "갈릴리아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시몬과 안드레아를 향하여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하자 그들은 일언지하에 그물을 내던지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마태복음 4 : 18-20) 또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곱과 요한 형제에게도 말을 건네자 배와 그물

과 그 아비까지도 그대로 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리고 세리인 마태가 세무서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고 말을 건네자 그 또한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예수를 따라갔다. 이와 같은 일을 기록한 복음서의 소박한 서술 속에서 우리들은 예수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붓다의 경우는 "오너라, 비구여"라고 불렀다. 아주 천한 신분의 수니다가 무거운 오물의 짐을 내려놓고 붓다의 발 아래 엎드렸을 때, 붓다는 그를 향하여 "오너라, 비구여"라는 한마디 말을 던졌다. "그것이 나의 수계였다"(소부경전 장노게경 620-625; 남전대장경 제25권, pp.230-1)고 말한 수니다의 술회는 [장로게]의 수많은 게문 중에서도 가장 인상깊은 일절이다. 피에 굶주린 앙굴마라가 칼과 활을 내던지고 스승의 발 아래 고개를 숙일 때에도 그 스승은 "오너라, 비구여"라고 하였다. 붓다는 많은 입신자들을 받아들이는 경우 "오너라, 비구여"라고 함으로써 입신의 승인을 주고 있다.

2.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와 법화경의 장자궁자의 비유 비교

[누가복음]에 '탕자'라고 하는 잘 알려진 비유가 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형은 착하였으나 아우는 그렇지 못하였다. 그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를 졸라 큰 재산을 나누어 받고 먼 나라로 가서는 방탕 끝에 그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말았다. 그 때 그 나라에는 심한 기근으로 살아가는 데 큰 고생을 하게 되자, 그 때에 크게 후회하고 '나는 하늘에 대해서나 아버지에 대해서나 큰 죄를 지었다.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나설 수도 없다. 제발 머슴처럼 써주십사라고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 애원이나 해 보자' 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발견하자마자 뛰어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춤하였다. 연민의 정의 앞선 것이다. '아버지 저는 하늘에 대하여 그리고 아버지에 대하여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아비는 하인들에게 명하기를 '빨리 좋은 의복을 입혀라. 그 손에 가락지를 끼게 하고 그 발에 가죽신을 신게 하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 식사준비를 서두르라. 나의 아들은 죽었다고 거듭 태어났고 잃었다고 다시 얻었도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쁨에 넘쳐 그 아들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누가복음 15:11-24).

불교에서는 '장자궁자의 비유'가 유명하다. "한 아들이 아비를 버리고 먼 나라로 무지유랑을 떠났다. 그가 집을 나와 이미 몇 년이 지났다. 그 동안 아버지는 슬퍼하고

걱정하며 사방으로 찾아 헤맸으나 찾지 못한 채 피로에 지쳐서 어느 도시에 머무르며 그 곳에 저택을 마련하고 부귀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부귀하기는 하였으나 끊임없이 아들이 걱정이 되어 마음 아픈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제 내가 죽을 때도 그리 멀지 않았다. 그런데도 저 어리석은 자식은 나를 버리고 떠난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다. 내 뒤를 이을 자는 과연 내 아들말고 또 누가 있겠는가' 라고 탄식하는 것이었다. 바로 그 때 그 어리석은 아들은 가련한 몰골을 하고 구걸을 하기 위하여 이 도시에 들어와서 우연히 그 아버지의 집 앞에 이르렀으나, 그 집이 자기 아버지의 집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그 호화로움에 압도되어 도망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자기 자식임을 알자 하인을 시켜 집 안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곧바로 부자관계를 밝히지 않고 우선 그로 하여금 분뇨 청소를 하도록 하였다. 그 아버지는 입밖으로 말은 하지 않았으나 그로 하여금 자기의 아들로서 적합한 훈련을 시키고자 마음먹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천한 일을 시키면서 끊임없이 격려하고 인도하여 점차로 그가 그 일에 익숙하게 되고 유혹도 이겨내어 야비한 마음을 버리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손색이 없도록 훈육한 다음에야 비로소 친자관계를 밝히고 정식으로 자기의 뒤를 이을 아들로서 친척과 국왕과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하였다."(묘법연화경 4 비유품)

이 두 비유의 소재는 모두 유랑하고 곤궁하며 무지하고 방탕한 아들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아버지는 그 행적을 굳이 책하지 않고 커다란 사랑으로써 그 무릎 아래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탕자의 비유는 하느님의 큰 사랑을 비유해서 표현했고, 장자궁자의 비유는 부처의 대자비를 나타내어 비유하고 있다. 그 소재와 구상에서 볼 때 너무나 유사하다.

그러나 아들을 받아들이는 방법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탕자의 아버지나 장자궁자의 아버지는 모두 유랑하던 자식이 돌아오기를 염원하고 있었다. 그 자식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은 그 무엇에도 비길 바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전혀 달라 분명한 대조를 보인다. 한 사람의 아비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즉시 아름다운 의복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주어 선량한 형으로 하여금 분노케 할 정도로 환대하였다. 또 한 사람의 아비는 그의 아들에게 그에 알맞는 일을 시켜 점차로 그 아들이 보다 좋은 인간성을 계발할 때까지 기다렸다. 형성적 단계가 조금씩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상응하여 아들을 대하였다.

3. 진정한 기독교도의 모습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갈라디아서 2 : 20)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 보낸 바가 있다. 옛날의 나는 죽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듭 태어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예수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요한복음 12 : 24-25)라고 한 바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이 한 알의 밀알처럼 사람들도 또한 죽을 수밖에 없다. "심은 씨는 죽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다."(고린도전서 15 : 36) 즉 "'흙으로 만들어진 땅의 존재'가 '하늘에서 온 사람'으로 거듭 태어남"이다(고린도전서 15 : 47). 이와 같은 거듭 태어남을 경험한 뒤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원칙에 의해 일관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는 제자들을 향해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마태복음 7 : 21)라고 설교한 바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시라."(고린도전서 11 : 1)라고 바울은 고린도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바 있다. 그 모방의 원형을 하느님에게서 발견하고 하느님을 본받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을 발견할 수가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신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4. 진정한 불교도의 모습

"걸식하는 그것만으로 수도승이라고 할 수는 없다. 모든 법을 몸에 익혀 수도승이 되는 것이지 걸식한다고 해서 그렇게 부를 수는 없다."(소부경전 법구경 266).

"마음에 뜻한 없고 거짓말하는 자는 머리를 깎았더라도 수행자는 아니다. 욕망과 탐욕에 차 있는 자가 어찌 수행자이겠는가."(소부경전 법구경 264).

"질투와 인색과 간교를 뿌리째 뽑아 없애버리고 성냄에서 벗어난 사람을 훌륭한 인물이라 한다."(소부경전 법구경 263)

외형적으로 나타난 모습이나 행위가 그로 하여금 사문으로서 사람들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로 하여금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는 것은 그가 법에 일관되어 있고 그에 따라 실천하기 때문이다. 법을 알고 법에 따라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이 진정한 불교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을 갈고 닦는 길에 있어서 반성과 참회는 반드시 요구된다. 반성과 참회를 위한 의식이 있었다. 布薩이 그것이다. 한 달에 두 번 초생달이 뜨는 밤과 보름달이 뜨는 밤에 포살의식을 올린다. 상좌에 앉은 장로가 소리 높이 戒本을 읽기 시작한다. 그에 따라서 지나간 보름 동안 선하지 못한 행위를 한 비구들에게 그 참회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자신을 갈고 닦음에 있어서 진정한 친구의 진정한 편달이 중요하다. 그 편달방식을 自恣라 한다. 하안거 해재식이 시작되면 먼저 장로 비구부터 합장한 손을 높이 올리면서 법으로 연결된 형제들을 향하여 "하안거 동안에 나는 어떠한 죄과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있다면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저의 죄를 없애고자 합니다"(율장대품 1, 14) 이와 같은 말을 모든 비구가 세 번 반복하는데 장로부터 시작하여 신참에 이르면 식은 종료된다. 이러한 간소한 생활 속에서 오로지 인간개발을 위한 자기형성의 순수한 길만이 뚫려 있었다. '나도 경작한다'라는 인간정신의 경작 원칙만이 한 가닥 힘차게 뚫려 있는 생활, 그것이 붓다와 그 제자들의 종교적 실천의 참모습이었다.

Ⅶ. 결 론

불교는 궁극적 의지처를 다르마(法 즉 진리)로 삼는다. 붓다는 4성제와 8정도를 제시한다. 4성제와 8정도는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심지어 붓다는 이 진리 외에는 붓다 자신에 대해서도 맹신하지 말고 각자 독자적으로 진리를 터득할 것을 강조한다. 오로지 4성제 8정도의 진리만을 의지처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기독교는 궁극적 의지처를 하느님으로 삼는다. 하느님만이 반석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하느님만이 전지전능하기 때문이다. 구원의 문제에 관한 한 어느 누구든 사람의 소관사항이 아니라 오로지 전지전능한 하느님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인간의 뜻으로 행하는 것을 그만두고 '다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실천을 통해 도달할 이상세계'에 대해서 불교는 번뇌의 불길이 꺼진 해탈 열반의 세계가 '바로 지금 여기' 현실세계에서 도달가능한 것으로 본다. 기독교는 '천국에서

의 영원한 생명'이 이 현실 세계 속에서 거듭 태어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천국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교에서 최고덕목은 사람을 포함한 살아 있는 중생의 기쁨은 배가시키고 슬픔은 반감시키는 대자대비인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법을 알고 법에 따라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이 선행되거나 병행되어야 할 것 같다. 기독교에서 최고덕목은 사랑이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원수에 대한 사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바울을 본받는 일이고, 예수를 본받는 일이고, 하느님을 본받는 일이다.

어느 경우든 순수한, 무구한 마음이 관건이다. 그 순수한 마음은 하느님에게로 향하는 순수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적 입장이고, 아견 아집이 털끝만큼도 개재되지 않아 일체를 비출 수 있는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 불교적 입장이다.

《참고문헌》

대정장 24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 권12
대정장 25 대지도론 권20, 권27
대정장 4 법구경 권하
대정장 9 법화경 권2
대정장 2 잡아함경 권18
대정장 1 장아함경 권2
대정장 2 증일아함경 권44
대한성서공회, 공동번역 성서(서울: 대한성서공회, 1999)
고익진, 아함법상의 체계성 연구(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0)
고익진 편역, 한글 아함경(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6)
교양교재편찬위원회 편, 불교학개론(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7)
김동화, 불교학개론(서울: 보련각, 1984)
김동화, 불교윤리학(서울: 보련각, 1989)

김승혜 편저, 종교학의 이해(경북: 분도출판사, 1995)
김종서 역, 비교종교학(서울: 민음사, 1998)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편, 새로운 정신문화의 창조와 불교(서울: 우리출판사, 1994)
마스다니 후미호 著, 이종택 譯, 불교와 기독교의 비교연구(서울: 고려원, 1991)
미천목정배박사은법학인회 편, 미래불교의 향방(서울: 장경각, 1997)
목정배 편역, 불교윤리사상(서울: 동국대학교, 1985)
목정배, 대승보살계사상(서울: 동국역경원, 1988)
목정배, 계율학(서울: 법사원, 1996)
박선영, 불교의 교육사상(서울: 동화출판공사, 1981)
法頂 옮김, 진리의 말씀-法句經-(서울: 불일출판사, 1990)
불교교재편찬위원회 편, 불교사상의 이해(경주: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1998)
스탠리 그랜츠 저, 신원하 옮김, 기독교윤리학의 토대와 흐름(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1)
윤청광, 불경과 성경 왜 이렇게 같을까(서울: 서울출판미디어, 1998)
이은봉 역, 성과 속(서울: 한길사, 1998)
이지관, 남북전육부율장비교연구(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6)
정승석, 인간을 생각하는 다섯 가지 주제(서울: 대원정사, 1996)
정승석, 윤회의 자아와 무아(서울: 장경각, 1999)
최법혜 편역, 불교윤리학논집(안동: 고운사본말사교육연수원, 1996)
최홍순, 비교철학연구(서울: 서광사, 1995)
최홍순 역, 비교철학이란 무엇인가(서울: 서광사, 1989)
Keown, D., *The Nature of Buddhist Ethics*(N.Y.: St. Martin's Press, Inc., 1992)
Saddhatissa, H., *Buddhist Ethics*(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70)